

지역 소식통

고창군,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첫삽'

고창군 성내면의 기초생활 거점 공간이 될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첫 삽을 떴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내면 양계리에서 '성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행사는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오세진)가 주관해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성내 우체국 뒤편에 지어지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70억원의(국비 28억원, 지방비 42억원) 사업비가 투입돼 내년 3월 말 준공 예정이다. 연면적 1329㎡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체육관(다목적 강당), 헬스장, 동아리실, 북카페, 세탁실 등의 복합적인 시설을 지닌 건축물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면 지역 주요 거점에 복지, 문화, 체육 분야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수요가 높았던 카페가 조성되어 지역민들의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병원 동행 도우미 서비스

부안군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가족 없이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증가로 노인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병원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동행 도우미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60세 이상 동행 도우미 4명을 선발해 안전수칙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부안성모병원 내에서 주중 평일에 오전, 오후 3시간씩 교대로 일을 하면서 병원을 찾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진료 접수와 수납, 진료 부서 안내, 약품 수령 등 병원 이용을 보조해 주는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한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평균 20~30명이 이용하며 친절한 안내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

조성 사업·실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에 자연물과 놀이기구를 이용해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놀이터가 들어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아동 전문가(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 부모 등 참석했다. 기적의 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린이가 원하는 놀이터, 주도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내장



정읍시는 지난 27일 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산 문화광장(쌍안동 536) 일원에 약 1만 9000㎡의 규모로 올 상반기 착공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2022년에는 시작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부산, 김해, 순천 등 5개 시·군에 설치된 놀이터를 방문해 벤치마킹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진행하면서 어린이, 아동 관련 전문가, 놀이터 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거쳐 놀이터 선호도조사를 마쳤다.

이날 아동 전문가들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정읍만의 특색을 반영한 놀이시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모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뛰고, 뛰어놀 수 있는 랜드마크 놀이터를 조성해 정읍을 전국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 참석한 전문가와 부모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기적의 놀이터가 전국 아이들이 놀러 오고 싶어 하는 놀이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3월 27일까지 제출

정읍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정책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27일까지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민참여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청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참여 열린시정'이라는 시정목표를 실천해 주민실생활 편의 향상과 주민밀착형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은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쳐 시 정책에 반영된다. 공모주제는 특별주제와 일반주제로 나뉜다. 특별주제는 △고향 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발굴 제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다. 일반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개선 또는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응모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우편(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또는 팩스(063-539-6504)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jrseo214@korea.kr)로도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통해 특별주제 분야에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일반주제 분야에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려 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지역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실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중 시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군민 아이디어 발굴 특례소통공감방 운영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특례 의견을 반영하고자 특례소통공감방을 개설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는 다른 예외적인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하며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에 담긴 131개 조문 333개의 특례에는 농생명산업, 수소산업, 수상레저산업진흥, 새만금 고용특구지정, 문화산업진흥특구 등 군 역점 사업들과 연관된 다양한 특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군은 특례소통공감방을 통해 웹툰, 카드뉴스, 알기 쉬운 전북특별법 등을 게시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

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사업과 정책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례 아이디어는 부안군청 홈페이지(www.buan.go.kr) 소통/참여 메뉴의 특례소통공감방을 통해 부안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며 온라인 매체 활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특례 아이디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군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안된 특례 아이디어는 군 관련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구제과 과정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에 특례 반영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숲으로 가자!' 정읍시, 2024년 유아숲체험원 운영

오는 13일까지 정읍 소재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정기반 대상자 모집

정읍시가 아이들의 정서적 교육과, 신체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정읍시공원 유아숲체험원을 본격 운영한다. 유아숲체험원에는 그물놀이터, 로프 놀이대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고 유아숲 지도사가 곤충, 흙, 나무 등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과 기관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시는 지난 2019년 정읍시공원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 후 매년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3300여명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계절별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올해는 오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정읍 소재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반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은 4월부터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정읍시공원 유아숲체험원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기반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산림복지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집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산림복지과 담당자 이메일(kns15790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정기반 외에도 3월 18일부터 11월까지 유아숲지도사가 2명씩 상주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

이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정기반과 수시반을 나눠 평일 오전과 오후 1회씩 운영한다. 수시반의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기 참여를 대상으로 목요일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이용 전에는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회기내 총 23건 의안처리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8일 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둘째 날인 21일 기획예산실사를 시작으로 총 21개 부서로부터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고, 의원들의 세세한 질의와 그에 따른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의안심사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조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의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임종

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고 총 수정의결 2건과 2건의 원안결로 마무리됐다. 한편 고창군의회 박성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을 언급하고 군내 수자원 확보에 대한 긴급성을 강조했다.

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장은 "임정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에서 군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대안들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